



2021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 사람을 잇다 마을을 잇다



2021  
강원도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사람을 잇는다  
마을을 짓는다





# Contents

- 06 강원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10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원체계

## 마을 그리고 사람

- 14 별마로작은도서관
- 22 초록도서관 마을공동체
- 30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
- 36 민동산 역사보존회
- 44 아꿈
- 50 피알플랫폼
- 58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
- 64 코코양
- 70 구슬땀
- 76 참가정운동실천본부

# 강원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강원도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주민 주도로 마을을 위해 활동하는 공동체

## 마을공동체 유형

### 1. 사회혁신형 마을공동체



#### 교육지원형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



#### 문화예술형

문화행사, 플리마켓, 라디오, 마을신문 등 주민기획참여 문화예술활동



#### 환경정비형

마을안전, 경관조성, 청소 등 주민 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



#### 복지봉사형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

\* 향후 사회혁신, 지역사회 문제해결 플랫폼 등 연계되는 정부 정책사업 연계

### 2. 사회적경제형 마을공동체



#### 소득사업형

마을 내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 향후 (예비)마을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진입 연계

## 지원 단계



### 1단계 발아(시군 지원사업)

지원자격	시군 기준 참고
신청규모	
지원기준액	
지원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 세대당 2인까지 인정</li> <li>* 공동체 구성원 동일 마을 (라·동·아파트 단지) 거주자가 60%이상 권장</li> </ul>	



### 2단계 성장(도·시군 지원사업)

지원자격	기존 마을공동체 (10인 이상) 활동 활성화정착
신청규모	64개 내외
지원기준액 (자부담)	10백만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지원횟수	2회



### 3단계 개화(도·시군 지원사업)

지원자격	자립준비 마을공동체 (15인 이상) 자생자립
신청규모	5개
지원기준액 (자부담)	20백만원 이내 (지원금의 10%이상)
지원횟수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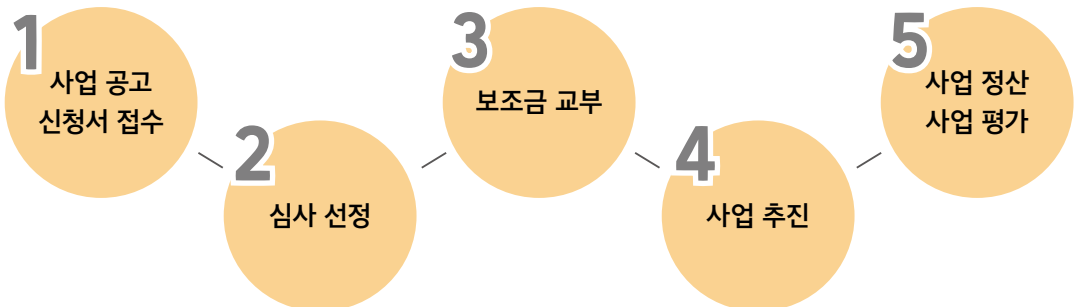
#### 목적

주민들이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자치 실현

#### 목적

주민들 스스로 마을 발전 과제 발굴을 통해 일자리·소득창출 등 지속가능한 자생마을 공동체 실현

## 추진 절차



## 사회혁신형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중간지원조직

기초단체



### 사회혁신형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 \* 혁신형 마을공동체 추진단
- \* 활동가 양성 교육
- \* 혁신 프로젝트 현장 멘토링
- \*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아카이빙

### 자원연계(후속지원)

- \* 소셜 리빙랩 지원사업
- \* 지역문제 해결형 뉴딜지원사업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기반의 사회혁신형 마을공동체 육성



## 사회적경제형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강원사회적경제연대



### 사회적경제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 담임멘토링/비전 및 BM 수립
- \*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실험
- \* 상품개발 및 판로 개척

### 자원연계(후속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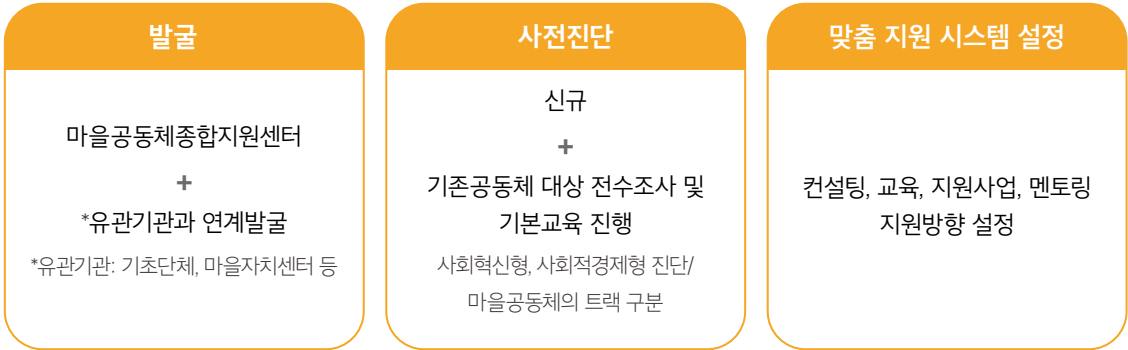
-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 \* 실험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연계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형 마을공동체 모델 발굴·육성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원체계

## 발굴 선정 단계



##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1:1 담임 멘토링

선정공동체 대상 1:1 담임멘토 지원

- \* 사업추진, 컨설팅 자문 연계, 네트워크 등 지원



### 컨설팅

사회혁신형

- \* 마을공동체 활동 개념 및 지역 소통, 의사결정 컨설팅
- \* 주민자치강화, 연대활동, 공동체 지속성 유지

사회적경제형(사회혁신형+사회적경제형)통합 컨설팅

- \* 유사공동체의 경제형발전 사례 컨설팅
- \* 경제형 공동체의 기본요건 정립

전문가연계 컨설팅

- \* 공동체 추진사업(활동)의 구체화 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연계
- \* 네트워크 확장 및 지원시스템 기반 구축

##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교육

### 기본교육



성장



개화

1회차 사업시작 교육: 보조금 교부전 시행

- \* 마을공동체 개념교육
- \*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및 운영, 발전방향 설정
- \* 지원사업 예산사용 방법 및 정산 교육

2회차 사업종료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전 시행

- \* 사업진행 결과보고 작성, 예산사용 증빙에 관한 서류정리

### 권역별 리더, 실무자 교육



밭아



성장



개화

- \* 지역주민 마을공동체 간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 \*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및 우수 사례
- \* 공동체원 역량강화 지원

##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 네트워크 지원

**대상** (권역기준)마을공동체, 지역주민,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지원

**내용** \* 지역의 문제해결 또는 공동체(회원, 활동)확산율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 지역 내·외의 자원연계형성 지원(예: 축제 및 체험활동, 교육, 판로행사)

## 사회적경제형 기업형(실험) 지원

**대상** 성장, 개화공동체

**내용** \* 사회적경제형 발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및 기반조성된 공동체 선발 진행

- \* 상품개발을 위한 실험 및 전문가 연계 지원

## 온라인 홍보지원

**대상** 성장, 개화공동체

**내용** \* 공동체 추진사업 홍보활용 및 홍보컨텐츠 제작지원 \* 뉴스레터 발행

- \*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사례 보도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SNS홍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

서로 달라도 괜찮은 것

조율

뛰어다니는 심장

이어달리기

한 줄기 빛

서로를 향한 진심

함께 꿈꾸는 미래

보람



# 마을 그리고 사람

영월



주민들이  
자랑하는 마을로  
만들고 싶어요

# 별마로작은도서관

대표자 박진홍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47  
구성원 40명  
설립 2018년

## 별마로작은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 마을의 부족한 점을 찾아 채우고

## 서로 하나 되어 소통하며

##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 Focus

#### 마을 문화 자원 부족

- \* 주민 여가 공간 미비
- \* 도서관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부재

#### 마을을 바라보는 비관적 관점

- \* '유배지, 폐광지' 등 마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부정적 인식

#### 주민자치 문화 부재

- \* 마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

### Move

#### 작은도서관 운영

- \* 도서 열람, 대여
- \* 초등독서논술교실, 중·고등인문학 클래스 등 독서 프로그램
- \* 창의과학캠프, 로봇코딩교실, 청소년 진로체험교실 등 스마트도서관 프로그램

#### 공동체 교육

- \* 건강 세미나, 기타 교실 등 교양 프로그램
- \* 관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연대 활동

#### 지역 주민 축제

- \* 우리 동네 책 놀이터
- \* 영화관람, 소풍, 공연 관람

### Effect

####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 \*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거점 공간 마련으로 주민 교류 증가
- \* 학령기 청소년들의 진로 학습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 부족한 부분을 주민 스스로 채우는 문화 형성

#### 마을 문화 인프라 확충

- \* 코딩 등 IT 관련 관심도 상승
- \* 도서관을 중심으로 악기 연주, 문화 탐방 등 주민 문화 프로그램 지속 개설

#### 공동체 활동가 육성

- \* 지역 내 타 공동체와 교류 확대
- \* 지역 강사풀 확보

**‘별마로작은도서관’의  
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영월’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로 단종 유배지, 폐광지와 같은 것들이지요. 이런 요소들로 인해 간혹 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별마로작은도서관’은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 우리 동네 영월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알아가는 활동을 하는 구심점이 되고자 201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별마로작은도서관’  
소재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별마로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영흥리는 초·중·고등학교 소재지로 항상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여기저기 헤맬 때마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별마로작은도서관이 생긴 뒤부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만한 곳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와 책을 읽고 간식을 먹기도 하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선물을 해준 것 같아 흐





못했습니다.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없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아도 없는 것을 스스로 채워가는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 설립 초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희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냥 마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 좌충우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활동에 대해 배우고 지역의 마을활동가분들께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나 마을활동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어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을 주민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별마로작은도서관을 처음 조성할 무렵에는 주민께서 무거운 책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기증하시기도 했고, 여름에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라며 옥수수며 과일을 가지고 오시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을이 참 정다운 곳이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지난 4년 동안 아이들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역사·지질·문화탐방을 다니며 학생들이 마을이 자랑스러워졌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마을의 학생들에게 로봇코딩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장비를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타 지역 마을공동체 활동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모 대기업이 주관하는 스마트스쿨 공모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뜻밖에도 4대 1의 경쟁을 뚫고 우리 별마로작은도서관이 선정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받았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 사업을 하며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꾸려가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역과의 관계,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 예산 운영, 미래에 대한 비전 수립 등 지금도 다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많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강원도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한두 번씩 받는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정체성과 목표가 뚜렷해졌고 구성원들 또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내 또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도 시너지가 많이 났습니다. 외부지역 강사는 여러 여건 상 모시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지역 내 강사분들이 적극 동참해주셔서 논술 수업, 기타 강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 중인 분들께 조언해주신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엇보다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목표를 향해 기꺼이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찾으십시오. 차근차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 결국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장이 되고, 그 사람은 다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마을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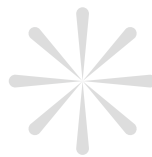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별마로작은도서관은 궁극적으로 마을의 자원을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에 있는 좋은 자원(천문대, 유적지, 산업시설, 지역축제)을 외부관광객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또한 마음껏 향유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자원이 주민의 자부심을 키우고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마로 스마트교육센터’를 만들어 영월에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영월과 같은 농촌지역은 교육 여건 상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월이 더 이상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서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함께 꿈꾸는 미래’다.



동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요

# 초록도서관 마을공동체

대표자 하수광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962-23  
구성원 40명  
설립 2017년

## 초록도서관 마을공동체는

###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온 가족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 Focus

##### 유·초등 자녀 돌봄 공백

- \* 지역 내 유아동의 돌봄 공백을 채워 줄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

##### 젊은 부모세대의 육아스트레스

- \* 육아에 서툰고 맞벌이가 많은 젊은 부모세대의 육아 고민과 스트레스 증가

#####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부모 네트워크의 필요

- \* 자녀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부모들의 지속적인 지역네트워크 부재

#### Move

##### 유·초등 자녀 프로그램

- \* 도서관 놀이터: 유·초등 자녀 10~15명 활동 프로그램  
(실내: 공동체 놀이, 독서·독후, 만들기, 클레이, 보드게임, 도예 체험)  
(실외: 농촌 체험, 직업 체험, 천문 체험)

##### 부모 프로그램

- \* 함께 크는 부모 강좌: 양육자를 위한 교양 프로그램  
(진로탐색 강좌, 감정·소통 세미나, 가족 영상 제작 강좌)
- \* 유쾌한 맘: 젊은 엄마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도예 교실)

##### 가족 참여 프로그램

- \* 초록빛깔 콘서트: 공동체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음악, 판토마임 공연

#### Effect

##### 자녀들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

- \*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안전한 돌봄 공간 제공

##### 자녀·양육자 함께 성장

- \*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 내 소통을 촉진하고 자녀·양육자 모두의 성장을 도움

##### 공동체 활성화

- \*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는 양육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초록도서관’의 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동해에서는 천편일률적이고 판에 박힌 학습 프로그램 외에 유·초등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님의 필요를 바탕으로 2011년 6월 비영리 ‘초록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도서관 부모 모임을 통해 부모를 위한 재교육과 자녀를 위한 대안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도 돌봄 공백을 채우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17년 3월, 마을공동체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초록도서관’ 소재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초록도서관의 활동 반경이라 할 수 있는 천곡동과 평릉동은 동해시에서도 꽤 규모가 큰 지역입니다. 초록도서관은 동해시 천곡동 언덕에 위치하여, 천곡동과 평릉동의 유·초등 자녀와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하나가 마을을 크게 변화시키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초록도서관 마을공동체는 그러한 큰 변화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늘 가까





운 가정 내의 작은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록도서관 마을공동체에 속한 가정 모두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 놀이, 체험 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각자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립 초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초기 단계일 때 가장 막막한 부분은 바로 참여인원 모집일겁니다. 회원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라 학교 앞과 거리에서 전단지들을 나눠 드리며 홍보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첫 1년 여를 보내고 점차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입소문이 나고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 갈 무렵, SNS에 웹 포스터를 게시해 홍보했음에도 단 10분 만에 모집정원을 넘기며 인원이 마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컨설팅해주신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색다른 작은도서관 모델들이 많은 부산으로 현장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 햇살나무 작은도서관, 느티나무작은도서관, 맨발동무도서관을 탐방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적인 도서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익한 활동을 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서 시도한 다양한 실험들이 우리 초록도서관의 발걸음에 좋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초록도서관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았을 무렵, 고맙게도 우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유초등 자녀들을 위한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초록도서관의 발걸음에 함께 하겠다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니 참 고맙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수차례 우수공동체에 머물다가 지난 2021년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었을 때, 지난 운영진들의 노력을 조금은 보상받게 된 것 같아 감격스러웠습니다. 초록도서관이 동해시에서 가장 뛰어나고,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주변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사실은 공동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 사업을 하며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수년 동안 초록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 놀이,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지난 2년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이 적었던 초창기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힘이 부칠 때는 스케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며 이겨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만남 그 자체를 위협하는 변수였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활동도 해보았지만 역시 공동체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더 좋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공간의 제약으로 인원을 선착순으로 제한하면서 모든 구성원에게 참여할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공동체의 공통된 어려움이기에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상황에 맞추고, 규모를 줄이며, 급격한 일정 변화에 양해를 구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핵심은 ‘지속성’이라는 마음가짐이 코로나 시국에도 꾸준히 초록도서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 중인 분들께  
조언해주신다면?**

코로나19가 가장 큰 상황적 어려움이었다면, 물리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행정 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과 활동에 대한 계획, 사용, 정산의 과정을 행정 서류로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과정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행정 업무에 대한 사전 공부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조금만 바라보는 공동체를 넘어서, 자생,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초기부터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되도록 많은 사례들을 살피고 탐방을 하며,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보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동해시 마을마다 자녀와 부모,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한 공동체와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초록도서관의 마을공동체 사업인 ‘초록빛깔나눔터’는 지금까지 양질의 교육과 문화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강원도 동해시에서, 자녀, 부모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의 만남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역시 희망은 ‘공동체’에 있음이 더욱 진하게 느껴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초록도서관 공동체에 가장 큰 동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록도서관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후원회원을 양성하면서 동시에 밖으로도 언제나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지역 사회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콘텐츠는 단순히 ‘학습’을 위해 진행하는 교육이 아닌, ‘바른 인격’을 함양하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유익하고 올바른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초록도서관 공동체는 노력하겠습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이어달리기’다.



철원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나누면  
현실이 됩니다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

대표자 조희선

소재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43

구성원 33명

설립 2018년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Focus

주민 간 교류 부족

- \* 적은 세대 수, 맞벌이 부부 중심의 주민 거주 유형으로 인해 커뮤니티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음

주민 소통 공간 부족

- \* 놀이터가 없어 단지 내 어린이 교류 공간이 없음

Move

공동육아 활동

- \* 주민 재능기부 연계
- \* 비대면 활동
- \* 그림책, 요리, 만들기, 심리수업, 심폐소생술, 건강교실 등

관내 문화체험

- \* 행복산촌마을 방문
- \* 할로윈 캠핑
- \* 딸기 수확, 가공품 만들기 체험
- \* 여름 캠프

Effect

지역 주민 소통 확대

-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기회 제공

공동체 공간 마련

- \* 주민 스스로 방안 모색

공동체 역량 강화

- \* 주민 강좌 탐색 및 개발

다채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

- \* 공동육아                      \* 시니어 공동체
- \* 교육 공동체                 \* 봉사 공동체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은  
어떤 공동체인가요?**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은 2020년 초,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문화가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공동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없어 어린이들이 어울려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자는 데 뜻을 모아 작은 프로그램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다양한 성격의 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은 주민 소통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강좌를 개발하고 공동체 공간 마련을 위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성 초반, 우리는 일단 1년 동안 잘 연대하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구성원들이 제시해주는 많은 의견 가

---

운데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취사선택해 추진하기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며 지난 2년 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올해는 가능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선별해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서로 대화하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 공동체를 꾸려가며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각자 살아가기에도 바쁜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함께 계획하고 시간을 내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공동체 시작부터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구성원들과 함께 이런 저런 방법을 모색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요즘 지역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소소한 만남을 이어나가며 점차 영역을 넓혀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냄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지속할수록 지역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무엇인가요?

철원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에 기여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1년에는 ‘함께 모이면 즐거운 도성’과 같은 공동육아 공동체의 형성을 도왔으며, 1년 간 꾸준히 교류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는 합창봉사 가족 공동체가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또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 세대와 어린이 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동화 구연 봉사 공동체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희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선사했습니다. 더불어 마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시작도 ‘아이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자’는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나누면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열리는 곳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공동체로 발전하고 싶으세요?

철원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철원의 문화 유산과 인프라를 발굴해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과 연계하고 타 지역과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가고, 우리의 힘으로 원하는 바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나아가 세상에 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비효과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조율'이다.



정선



함께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하고 싶어요

## 민동산 역사보존회

대표자 전영석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451  
구성원 12명  
설립 2018년

민동산 역사보존회는 ‘역새’를 보존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관광 상품을 개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마을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Focus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

-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한 마감 압박
- \*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타격

마을 공동화 현상

- \* 탄광지역 마을의 일자리 감소
- \* 인구 절벽 및 고령화 진행
- \* 마을 공동화 진행

역새 자원 방치

- \* 지역자원인 역새를 활용하지 못함
- \* 주민들의 역새 이해도 부족
- \* 토종 참여세의 서식지 위기
- \* 역새를 활용한 특화 상품 부재

Move

지역자산 이해와 활용

- \* 세계 역사마을 만들기 교육
- \* 지역의 자산 알아보기
- \* 가공품 관련 교육
- \*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 \* 무릉리 세계 역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역새육묘 및 보존

- \* 역새농장 견학
- \* 역새모종 판매
- \* 마을 유휴공간에 역새 식재

마을 환경 개선 사업

- \* ‘역새빛 나리길’ 조성
- \* 마을 일원 미니 화단 조성

마을공동체 활동

- \* 민동산, 역새 축제장 주변 포토존
- \* 역새와 역수로 놀아보자

Effect

지역자산 홍보

- \* 언론에 꾸준한 노출로 역사보존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 및 공감대 확보

공동체 활성화

- \* 참여 인원 확대
- \* 소모임 활성화

일자리 창출

- \* 역새 관리 및 가공품 제조 등 주민들 일자리 창출

전문성 확보

- \* 민동산 역사축제장 내 역새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일한 단체

**‘민동산 역사보존회’  
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8년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선군 도시재생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밤에도 밝은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마을의 중요한 자산인 민동산과 역사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재생센터와 학생들의 사업을 이어받아 2019년 ‘역새빛 나리길’을 조성하고 정기 모임과 학습을 진행하며 2020년 본격적인 역사 육묘와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민동산 역사보존회’  
소재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정선군 남면 무릉리는 과거 탄광산업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이르러 석탄합리화 정책이 진행되며 인구가 줄어들고 석탄산업과 함께 지역도 함께 쇠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탄광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용시한이 다가오면 시효를 연장하는 일이 반복되며 지역과 마을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

각이 커졌습니다. 우리 무릉리에는 우리나라 5대 역사 군락지 중 하나인 민동산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동산에 서식하는 참억새 모종을 보존하고 또한 여러 종류의 역사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지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관련된 파생 상품군을 개발함으로써 마을의 어르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보존 활동을 통해 작게는 우리 마을 내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크게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성장하는 것 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설립 초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역사의 자원화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논의에만 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좌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우리 공동체를 보고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주민이 계셨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대부분이 직장인이라서 시간을 맞춰나가는 것이 여전히 쉽지않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활동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어려운 반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자 시간이 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벌써 5년째 꾸준히 사업을 유지,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사실 저희는 우리와 같은 활동을 한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어 개척자의 마음으로 길을 찾아 가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농원’, ‘꽃마당 농원’, ‘양양농원’, ‘강원대 식물자원학과농장’,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 역사농원을 견학하며 역사육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조했습니다. 또한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역사육묘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키운 역사 제품이 상업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3년간 정성을 다해 꾸준히 키워온 역사가 상품으로 출하되는 광경을 보았을 때는 너무 뭉클했습니다. 또한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만들어낸 제품이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들어오는 주문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곡차곡 쌓인 이러한 심적 자산 덕분에 활동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사업을 하며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회원 모두가 초보 농부라 모종에 물을 주는 양이나, 약을 준다면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하나 등등 작은 것에도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육묘업 교육도 받았지만,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많아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단 하나의 답을 정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실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획을 나누거나 재배지를 확대하여 각자가 추구하는 방법대로 육묘를 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구성원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2,310㎡(700평)의 부지를 임대하고 하우스도 1동을 더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모종 발아율이 40% 정도였지만, 올해는 발아 성공률이 더 높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적더라도 소신에 따라 육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일이 많아지면서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어 마을과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 중인 분들께  
조언해주신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마을의 작은 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할 이웃이니까요. 더 나은 환경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나은 마을에 살고 싶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분쟁이나 다툼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세요. 때로는 내 생각이랑 맞지 않아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얼굴 보면서 살아가야할 이웃인데 얼굴 붉힐까봐 걱정되겠지만,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작은 성취들이 하나, 둘 쌓여 큰 성취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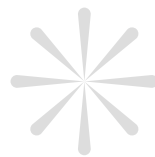
**향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우선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육묘사업의 생산기반을 연간 100만 주 이상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성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 가공품을 더욱 양질의 상품으로 제작하는 상품 고도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동산에 참억새 군락지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 역사박물관을 조성해서 '억새'로 자립·자생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줄어들며 비어가는 마을이 아닌 다시 찾아오는 마을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서로 달라도 괜찮은 것’이다.



춘천



연대를 통해  
서로 치유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학교폭력!’**

다음은 우리 자녀의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아꿈 마을공동체-

**‘학교폭력!’**

잘 보면 보입니다.

-아꿈 마을공동체-

# 아꿈

대표자 이호진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12  
구성원 19명  
설립 2019년

## 아꿈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채우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동체입니다.



### Focus

#### 지역 내 학교폭력

#####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

- \* 경험 공유, 예방 활동, 교류의 기회 부족

#####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필요

### Move

#### 공동체 운영 회의

- \* 운영 회의 및 소모임 회의

#### 구성원 역량 강화

- \* 가족캠프
- \* 미술치유, 도형심리검사 자격 교육
- \*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 \* 청소년 또래 상담사 양성 교육

#### 회복 프로그램

- \* 가족 산행 및 걷기
- \* 걷기단체 연계 호수 음악회 참가

#### 지역사회 캠페인

- \* 학교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
- \*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 \* 도형심리상담 공개 강좌
- \* 또래상담
- \* 도심 설문조사 실시
- \* 시민 케이크 나눔

### Effect

#### 구성원 태도 변화

- \* 상호 교류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는 분위기
- \* 구성원 상호 연대
- \* 내부에서 사회로 관심 확대

#### 구성원 역량 향상

- \* 구성원의 자격증 취득
- \* 상담역량 강화
- \* 지역사회 활동 실천



## ‘아꿈’은 어떤 공동체인가요?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과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치유와 교육,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춘천 소재 마을공동체입니다. 2016~2018년,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강원센터 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 학부모 자조모임 참여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춘천사회혁신센터 청소년 동아리를 구심점으로 모이다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동체가 꾸려졌습니다. 2020년까지는 비영리단체인 조이호프상담교육센터 산하 공동체였고 2021년, ‘아꿈’이란 이름으로 독립하여 비영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 학부모들도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양육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위기에 놓인 자녀들을 도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여타 단체들과 연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자조모임을 추진하고 미술치유, 도형심리검사, 가족캠프, 토래상담, SNS 크리에이터 교육, 거리 캠페인 등 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 공동체 활동으로 이끌어낸 변화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를 주축으로 모였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자세히 나누거나 예방 활동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구성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면서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폭력을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뀌나가고 싶다는 구성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 공동체 활동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먼저 치유를 경험한 입장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로 가족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떠나 함께 대화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모여 상처를 보듬고, 꼭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합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인근 지역에서 ‘아꿈’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작은 단위 학부모 모임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자부담 비용을 마련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와 관련해서 규정을 세우는 과정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쉽지 않았지만, 서로 솔선수범하고 과감히 결단하며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된 활동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참여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무조건 계획을 철회하기보단 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해서 실행해 갈 방법을 토의하면서 성장해나갔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자하는 단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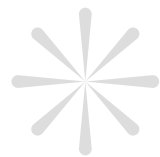
하고자 하는 일을 처음부터 다 실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도 자주 소통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조금씩 수렴 나간다면 누구도 거북해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가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의 성격에 맞게 위탁기관, 지자체와 맞춰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고유의 정체성과 목표를 잃지 않도록 충분히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의 회복입니다. 피해 사례 관리, 상담 등의 전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 문화적 경험, 활동 공유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회복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체험활동 및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폭력 없는 세상, 일상에서 치유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한 줄기 빛’**이다.



2021년 강원도 마을활동가 발굴 프로젝트  
강원도 강릉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기초)

21. 07. 09.(금) 13:00 (금) 장소 강릉시 강릉시회관 은행나무실  
초/주관 : 강릉시회관 지원센터



#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마을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 피알플랫폼

대표자 김채희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1047  
구성원 85명  
설립 2015년



서로의 다름이 존중되는 마을공동체입니다.

Focus

주민 요구에 반하는 지역 개발

- \* 원치 않았던 방송대가 들어서자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 진행

주민들 간 교류 및 소통 장소 부족

- \* 외부인에 대한 경계 및 어촌과 농촌 마을로 구분이 되어 있어 생긴 문제

지역 관광자원 홍보 콘텐츠 부재

지역사회 문제가 된 노인 우울증과 치매

해변 난개발로 인한 쓰레기 문제

Move

송정동 마을학교 운영

- \* 방송대 학우들이 주민들과 관계 개선 노력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전
- \* 60대 이상 어르신 평생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기획
- \* 송정동 '열 두달 이야기' 제작

송정동 공동 텃밭 운영

- \* 다문화가정 및 주민 대상 무상임대·농작물 나눔

안목해변 커피 서비스

- \* 커피해설가 양성, 커피스토리북&커피컬러링북 제작, 커피체험 프로그램 개발
- \* 송정동 '라떼마을' 프로젝트

주민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

- \*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문턱нат추기' 사업
- \* 80대 독거 어르신 돌봄 및 빵 간식 나눔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격 취득

마을 해변(송정해변) 환경정화·주민과 관광객 대상 환경 캠페인

Effect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 \* 마을을 지키고 알리기 위한 여러 단체의 협력 활동

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 2021년 한마음대회 우수상 선정

마을 문화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동가 육성

- \* 지역 내 타 공동체와 교류 확대 \* 외국 사례 공부
- \* 지역 강사 네트워크 형성



**‘피알플랫폼’의  
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강릉시 송정동에 설립된 방송대에 재학중인 학우들이 ‘배워서 남 주자!’는 의미로 지역에 교육봉사를 시작하며 설립되었습니다. 텃밭을 임대해 함께 농작물 나눔 활동도 해보고, 마을학교를 만들어 교육봉사와 평생학습 및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뜻있는 주민들과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출자금을 모아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요.

**‘피알플랫폼’ 소재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2015년, 송정동 주민분들은 마을에 방송대가 들어오는 것에 크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마을에선 동명초등학교가 신축 이전하길 바라셨다고 해요. 끝내 어르신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방송대 학우들은 주민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던 즈음에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서로 안부를 묻지 않으면 서운한 사이가 되었어요. 송정동은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과 소나무로 유명한 송정해변으로 이루어진 어촌마을과 감자를 재배하는

---

농촌 마을로 구분되어 있어서 정말 소통이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방송대 학우의 봉사를 통해 주민과 방송대의 관계 회복은 물론 마을 내부적인 소통의 부재 문제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매년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출간하는 사례집을 참고했고, 또 우리 마을과 비슷한 곳으로 견학을 다니며 많은 걸 보고 배웠던 거 같아요. 그리고 SNS로 마을활동에 관한 자료를 찾아 수강하거나 마을에 필요한 교육을 찾아 듣고, 때론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외국사례를 찾아 읽으며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나름 애를 쓰긴 했지만 마을공동체를 먼저 가꿔온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올해로 주민들과 함께 지낸 인연이 6년이 다 되어갑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은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엔 타지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곁을 주지 않았던 마을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 저를 반겨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정말 감격했습니다. 또 송정동 마을학교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주셨던 기억도 참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처음의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진 지금은 요청드리는 인터뷰도 흔쾌히 응해 주시고, 이주한 주민들에게 마을 옛 지도를 만들어 배포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을을 알리고 계세요. 처음과 많이 달라진 주민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 설립 초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공동체 활동을 하기 이전,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서로 무관심했고 외 부인을 경계하고 어촌과 농촌마을로 나뉘어서 서로 화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가진 다른 단체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주민들의 안방 문을 두드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마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진심이 통해서 일까요? 이제는 마을을 지키고 알리는 일에 여러 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 안내판도 함께 제작하고 있고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마을에서 사라졌던 옛 우물터를 재현해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 사업을 하며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초창기에 주민과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마을 내 동아리 활동을 할 공간도 없고 잠시 머물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곳도 없어 매번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 댁을 빌려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방법대 초소를 잠시 빌려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서류를 정리할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정산이나 사업계획서와 같은 서류 작업에 막혀 포기하는 마을도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나마 우리 마을은 방송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 중인 분들께 조언해주신다면?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신뢰를 쌓아가는 인간 본성의 회복 운동이에요. 안전한 환경, 세대가 골고루 소통하고 참여하는, 난개발 고통에서 자유로운, 교육문화 환경이 좋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는, 특히 서로의 다름이 존중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때론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며 근거 없는 오해를 받거나 나만 바쁘게 뛰어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꿈꿔왔던 마을을 만들어가는 재미와 보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사는 곳이 더 살기 좋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지막 단계인 개화 단계에 도전했습니다. 근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송정동 ‘라떼마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커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커피 컬러링북과 커피 스토리북 제작, 커피해설가 양성으로 커피투어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청년들과 함께 시제품을 개발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10월 마을기업으로 진입한다면 다양한 수익사업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을공동체는 마을 안에 커피 디자인센터를 건립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조금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태백

!!!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자 더욱  
행복해졌어요

#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

대표자 김옥상  
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통동 79-15  
구성원 22명  
설립 2019년

#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은 갓 구운 빵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 돕고 함께 돌보는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 Focus

가정과 이웃 간 소통 부재 및 관계 단절  
소외 계층에게 관심과 도움의 손길 필요  
봉사와 헌신에 대한 재조명  
지역 농산물 생산자들의 판로 확보

## Move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빵 나눔

\*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가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및 빵 나눔

봉사활동

\* 취약계층 대상 목욕 봉사, 보일러 교체, 주거환경 개선, 반찬 나눔, 도배, 연탄 나눔 활동

지역 의료인력에 간식 전달

\* 태백 관내 8개 동 보건소 및 지역행정복지센터, 선별진료소 등

지역 브랜드 빵 상품 개발 추진

\* 지역 농산물(곰취, 엇리, 오가피)을 활용한 제품 개발

## Effect

나눔 봉사 실천으로 이웃과 소통 증진, 유대관계 형성

지역 브랜드 빵 상품 개발

\* 지역 생산 농산품의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 증대 기여

\* 지역 일자리 창출

\* 판매 소득을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의  
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벌써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 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태백에서 빵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 같이 즐겁게 만든 빵을 이웃과 나누며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태백지역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시설, 군부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이들을 위한 빵 나눔 봉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브랜드 빵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상품을 개발, 판매도 시작해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혼자 하는 봉사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는 봉사일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통해 항상 다시 느끼곤 합니다. 나눔의 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



---

지는 마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눔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나누는 행위에 언제나 도움을 받고 활동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어버이날 행사 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음악밴드의 색소폰 연주를 들려드렸어요. 그 날, 어르신들이 ‘내 자식보다 낫다’며 ‘최고’라고 칭찬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들 미소를 보며 저희도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눔과 봉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항상 좋은 기운을 전파하는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활동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사업을 하며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 위로와 응원을 마음에 담아 따뜻한 빵을 전달하고 또 코로나19 예방에 힘쓰시는 종사자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빵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베이커리 나눔 활동은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 중인 분들께  
조언해주신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을과 공동체를 다음 세대들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의 즐거움을 다양하게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역의 제과 제빵 체험 장소로 언제든지 공간을 열어 둘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이웃 간 추억을 만드는 장소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빵을 계속해서 개발해 지역 농산물 생산자분들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과 아동·청소년·노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베이커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공동체 동아리로 정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나눔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원주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함께 걸어갑니다

# 코코앙

대표자 황승룡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충정길 12  
구성원 25명  
설립 2021년



## 코코앙은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행복한 삶을 가꾸가는 공동체입니다.



### Focus

#### 구도심 공동화

- \* 도시 미관을 해치는 설치물
- \* 낙후된 시설의 보수 문제 발생
- \* 커뮤니티 해체

#### 마을 인구 고령화

- \* 복지 문제 발생
- \*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저하
- \* 문화 소외 현상

#### 코로나19로 삶의 질 저하

- \* 지역 내 관공서 업무 과다

### Move

#### 지역공동체 활성화

-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지역 현안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 \* 각종 지역행사 후원 및 참여
- \* 회원 재능 기부 봉사활동
- \* 보건소, 소방서, 농인단체 등 후원

#### 중앙동 마스코트 '코코앙' 특화사업

- \* '코코앙' 특화거리 조성
- \* 원일로 도로변 미관 개선

### Effect

#### 마을 환경 개선

- \* 시설물 보수
- \* 도시 미관 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
- \* 이웃 간 교류 증진
- \*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활력 증진
- \* 공동체 봉사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회복

#### 마을 네트워크 확장

-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청년그라운드 등 지역 내 단체와 연계 지점 생성

## ‘코코앙’ 공동체에게 2021년은 어떤 해였나요?

공동체와 관련한 주민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업을 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립 의지가 높아졌고 자치역량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코앙에서 진행했던 교육프로그램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청년그라운드 등 지역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던 것도 유의미한 변화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향후 진행될 문화·예술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중앙동 마스코트 ‘코코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보람이 큰 한 해였습니다.



## 코코앙 캐릭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코코앙, Korea(Ko)·Core(Co)·중앙(앙)’은 치악산을 기본으로 머리는 치악산 정상 돌탑 세 개를, 눈은 중앙을 의미하는 한자 ‘中’을 활용해 디자인했습니다. 활기찬 원주의 중심 중앙동과 행복한 원주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원주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캐릭터 상품 제작을 의뢰해 놓았는데 중앙동을 찾는 사람뿐 아니라 원주를 찾는 관광객 누구나 갖고 싶은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상징이자 대표 관광상품인 ‘쿠마몬’처럼 코코앙도 모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제한되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거나 홍보영상 제작으로 대체했습니다. 간혹 구성원 간에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해와 존중으로 극복해나갔습니다. 마을공동체를 꾸리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 화려한 성취는 아닐지라도 더없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숲속의 현자’로 불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우리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고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코코앙 역시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소방서, 치악체육관 백신 접종 현장, 지구대 등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현장을 방문하여 약선차와 건강떡을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어르신 인생 사진 찍기, 농아인협회 원주시지부 후원 등 이웃 간 교류를 도모했던 사업과 ‘코코앙’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나뉠의 성과를 거둬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동의 마스코트인 ‘코코앙’을 활용해 원일로 일대의 낡은 전기분전함을 꾸며 전반적인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전체에 중앙동의 공동체 문화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명 주소판도 코코앙을 넣은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습니다. 관공서부터 시작해 통장 집과 문화의 거리 상가도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올해는 2,000여 세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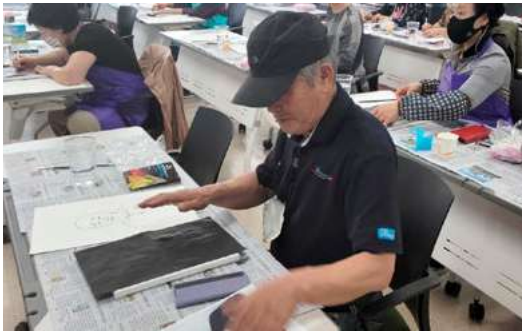


##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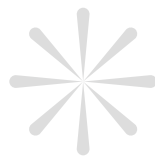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을 했습니다. 16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의견도 모으고 교육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서로 달랐던 가치관을 맞추고 지향점을 같이 갖고 가니 참 좋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치관을 맞추는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특징 중 하나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평원동 벽화 그리기를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 신한 아이디어도 많다 보니 만날 때마다 활기가 느껴집니다. 한 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주신협과 밝음신협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보며 후원해 주기도 했고 주민들이 고생한다며 격려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관내 청년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건강도시'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차원으로 고령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동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wellness)'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뛰어다니는 심장’이다.



원주



꿈을 향한 행복한 동행 그 이상의  
텃밭을 일구며  
미래도 함께  
가꿔갑니다

# 구슬팍

대표자 박성균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금불4길 39  
구성원 20명  
설립 2021년

# 구슬땀은 이웃 간에 텃밭을 가꾸며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 Focus

- 마을공동체 문화 부족**
  - \* 이웃 간 교류가 거의 없음
  - \* 커뮤니티 공유 공간의 부재
- 지역 내 진로 교육 수요**
  - \* 학교밖 청소년 문제
  - \* 자녀 교육 관련 상담 채널 부족

## Move

- 텃밭 가꾸기**
  - \* 희망자에게 텃밭 분양
  - \* 농작물 품평회 등 커뮤니티 활동
- 진로·직업 교육**
  - \* 진로상담사 자격증 전문과정
  - \* 진로 전문가 초빙 및 진로 검사
  - \*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회원 재능 기부를 통한 공부 지도
  - \* 한국사 국가 자격증 과정 교육
  - \* 자기주도 학습 지도
- 공동체 기여 활동**
  - \* 마을신문 발간
  - \* 텃밭 수확물 경로당 기증

## Effect

- 주민 공감대 형성**
  - \* 텃밭 공유를 통한 상호 인식
  - \* 주민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지원
- 공동체 문화 발전**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논의
  - \* 마을신문 발간을 통한 주민 소통
  - \* 교육 봉사
  - \* 타 공동체와 교류 협력 증진
- 지역 청소년 문제 해결**
  - \*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체계적인 학습, 진로 지도 제공

**‘구슬땀’ 공동체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지만 좀처럼 서로 인사를 건네지 않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마을 주민이 서로 소통하길 바라던 와중에 문득 텃밭을 함께 가꾸며 ‘구슬땀’을 흘리면 어떨까 생각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주민 대다수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았고,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내 마을 학생의 진로는 내가 책임진다’는 주민이 많아졌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는 마을이 었지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제는 반갑게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실감합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밖 청소년이 많은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무료로 자기 주도 학습을 지도해왔습니다. 공부 방법 지도를 받으며 점차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구성원들이 상담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의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진로를 고민하고 의논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상담 봉사자나 내담한 학부모, 학생 모두 감



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다 보니 어느덧 더불어 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 활동 중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나요?

텃밭을 함께 가꾼 결과로 ‘농작물 품평회’를 하며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웃과 함께 농작물 재배방법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거나 텃밭을 관리하느라 혼자 고생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 주민이 먼저 제안해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직업체험, 진학상담 봉사의 경우, 이런 상담은 처음 받아 본다는 고마워하는 주민, 직접 한국사자격증 과정을 지도하겠으니 장소만 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변화해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무엇보다 기뻐했습니다.

### 활동과 관련해 어려움은 없었나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계획을 여러 번 수정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신청 확인, 취소, 재신청 등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업무까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행정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도 예산 사용에 한계가 있어 총무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

**공동체 활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요?**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두려워말고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면 함께할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굳게 믿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젊어서는 보수가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에는 보람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돈을 벌기 위해 애썼던 기억은 잘 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었던 봉사는 영원히 마음에 남습니다. 봉사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사람은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믿고 일을 효과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자 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끄는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마을공동체는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생각을 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리더의 조건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공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이의 생각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동료 설득하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셋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사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즉시 표출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리더는 항상 상황을 낙관해야 합니다. 그런 리더라면 반드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모두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보람'이다.

원주



우리 안의  
선한 마음이  
큰 힘이 될거라고  
확신해요

## 참가정운동실천본부

대표자 김선정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원동 93-1  
구성원 10명  
설립 2017년

참가정운동실천본부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마을 확산운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Focus**

한국사회의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의 증가  
 결혼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어려움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낯설고 불편한 시선들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재

**Move**

다문화가족 한국 문화 탐방  
 \* 다문화 가정의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가족단위 여행 기획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결혼이주민 교육  
 \* 한글 교육      \* 한국 음식 만들기 강좌

지역사회 봉사  
 \* 마을 거리 청소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청소  
 \*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 소독

세계의 날 공동체 행사  
 \* 각 나라 의상 입어보기  
 \* 각 나라 전통음식 만들고 나눠 먹기

**Effect**

원주 지역 다문화가정 간 교류 활성화  
 \* 가족 및 이웃과의 소통에 도움  
 \* 부부 간, 부모-자녀 간 관계 회복  
 \* 회원 간 네트워크 형성

결혼이주민 자부심 고취  
 \* 한글교육을 통해 학습 의욕 고취  
 \*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  
 \*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문화 다양성으로 인식



**‘참가정운동실천본부’의  
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국을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나라, 인종의 한국인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도 마찬가지로 결혼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하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다문화 가족들을 모아 한국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우리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참가정운동실천본부’  
소재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는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는 아닙니다. 원주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모였습니다. 회원들이 원주 곳곳,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만큼 가까워서 자주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일반 가정에서는 시간을 내어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변 다문화 가족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을 망설이고 또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봤

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팠지요. 원주에 정착해 살아가는 많은 결혼이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시도조차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단체여행을 기획해 여행의 기쁨과 알찬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공동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생길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일 경우가 많아 정말 많이 속이 상하고 고민이 되고는 합니다. 저희가 처음 문화탐방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 때 주변 지인 분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감사한 마음을 지역 사회에 봉사로서 환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 원동에서 남부시장까지의 골목을 걸으며 길거리

청소를 진행하고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 및 방역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서투르고 외모도 다른 결혼이주민이 “왜 한국에 와서 봉사를 할까?”하고 궁금해 하고 낯설어 하시던 어르신들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우리 회원들을 같은 한국사람으로 대해 주셨을 때, 또 마치 딸처럼, 며느리처럼 아껴주실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경험하게 된 다양한 활동이 회원들의 일상에서도 이어지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문화가 그저 지식이나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길 바라고 고추장과 김치를 담그는 기술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와 서로 돕는 정을 얻어가길 바라는 것이지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가 있으신가요?

참가정운동실천본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지역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모습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결혼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불어 결혼이주민들은 현실적으로 한국인들과 동일한 노동의 기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가정운동실천본부만의 사업 차별성을 찾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에게 마을공동체란  
'서로를 향한 진심'이다.



## 사람을 잇다 마을을 짓다

퍼넌곳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퍼넌날 2022년 6월

주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홈페이지 [www.gwmaeul.org](http://www.gwmaeul.org)

전화 033-749-3905      팩스 033-749-3900

편집·디자인 (주)도서출판 이음

이 책은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주)도서출판 이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저작권은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주)도서출판 이음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잇다 마을을 짓다’는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지향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입니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잇다  
마을을 잇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Gangwon Community Support Center